

2015. 1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5.12.28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송인덕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
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5	8	-	1	14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9	6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1건	11건	11월
교양	TV 기행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리포터의 전문화	전문화된 리포터 활용	11월
교양	건강프로그램 의학용어 너무 어렵지않게	의학전문용어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	11월
보도	헤드라인 뉴스 배경음악 세지 않게	배경음악 조절하여 뉴스내용 전달	11월
교양	야채와 채소 차이점 알고 사용하길	올바르게 사용하게끔 교육	11월
보도	토크 프로그램 출연자 섭외 적절	시청자들이 관심 갖는 출연자 섭외	11월
교양	라디오 다크드라마 구성 매끄럽게 함	라디오 다크드라마 구성 등에서 완성도 높임.	11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불임과 여성 주제 눈길가	토크 프로그램 시청자관심을 갖는 주제 선정하여 출연자 섭외	11월
교양	뉴스 리딩 현장톤과 스튜디오 톤이 다르지 않게 하길	뉴스기자의 현장음과 스튜디오음이 통일되게 제작	11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시청자와 공감되는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 코너 활성화하여 시청자들과 교감갖는 주제로 진행	11월
보도	기획뉴스를 삽입	기획뉴스 선보임	11월
교양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정 다룸	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2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12월 10일 방송된 시사플러스는 청소년기 성형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성형외과, 셀프 성형기구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준 시간이었다. 최근 사회 이슈인 성형열풍의 원인, 실태, 해결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관련 의료법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p> <p>다음으로 소개된 환경미화원 어머니들에게 대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고마운 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 강한 시사 프로에서 감각적인 영상과 따뜻한 내용은 적은 분량으로 소개되었지만 강한 인상이 남는 시간이었다. 시사 프로이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루기를 바란다(오덕성).</p>	<p>시사플러스는 주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가능한 제안제시까지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고 있다. 제작진의 업무량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주제에 따라 대안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고 있다. 이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제작의 기본 정책이기도하다.</p> <p>환경미화원 어머니 이야기는 자칫 건조하고 드라이한 시사 프로그램에 청량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p> <p>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들도 시사플러스에서 소개를 하곤 한다.</p> <p>앞으로도 사회의 건전성을 지켜내는 공공성부문에 더욱 힘쓰겠다.</p>	○		
편성	<p>12월 19일 허참의 토크 앤 조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학자 오한숙의 신명나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여성학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p> <p>이어 진행자와 게스트가 함께 모여앉아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찬내용과 맛깔나는 말솜씨로 진행자와 여성구성원들로 보이는 방청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듯 보였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여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대변하고 많은 여성들이 가려운 곳으로 긁어주는 책이라 소개하며 급하고</p>	<p>토크&조이 제작진은 주인공의 선정부터, 담을 이야기까지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모아 핵심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 여성학자 오한숙 편은 적절한 주인공 선정과 많은 분량의 내용 중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핵심 부분에 대한 전달에 노력하였다.</p> <p>여성학자로서 여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잘 부각되어, 방송이 나간 후 피드백이 좋았다. 이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다.</p>	○		

	<p>바쁜 사람들의 책을 통해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특히 그녀가 주장하는 여성의 권위와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진솔한 인터뷰는 여성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시청자들도 공감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p> <p>이번 주 방송은 아주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녀의 웃음과 옷차림은 사람이 가져야 할 여유를 느끼게 하고 맛깔나는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그녀의 말씀씨는 모두가 공감하고 공감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오덕성).</p>			
<p>편성</p>	<p>지난 12월 19일과 26일에 방송된 대전MBC 창사 51주년 특별기획 2부작 ‘갈릭루트’는 마늘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 기획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수작이었다고 생각한다.</p> <p>4개 대륙 6개국 현지취재였다는 점에서 대전MBC 다큐멘터리의 새 장을 열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우선 현지취재를 통해서 생생한 활용 사례를 담아내 우리 마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다.</p> <p>1부 ‘세계인 마늘에 열광하다’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이집트에서 시작돼 유럽과 아시아로 이어진 갈릭루트를 따라 번성한 인류의 모습을 군더더기 없이 담아낸 전개가 관심을 끌었다.</p> <p>2부 ‘마늘에 엉뚱한 상상을 허하라’에서는, 품종 개량과 마늘 가공품의 개발 노력으로 수입산 마늘로 폐농 위기를 극복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의 현실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조명한 것은 우리 마늘 농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 하고자 한 기획 의도를 충분히 담아냈다고 본다.</p> <p>또한 단순히 향신료와 양념의 개념을 넘어 앞으로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마늘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 계기가 됐다.</p> <p>다만 아쉬운 점은, 2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다소 길어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떨어진 부분이었다.</p> <p>전반적으로 스피디하고 유려한 카메라 워킹이 돋보였고, 성우나 아나운서가 아닌 내레이터의 기용이 신선했다. 다소 야마쥬어인 듯한 점이 오히려 정감 있게 와 닿았고, 요리를 이해하는 내레이터라는 부분이</p>	<p>창사 특별기획으로 제작된 <갈릭루트>는 이 프로그램은 2부작으로, 1부 <세계인, 마늘에 열광하다>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유럽, 신대륙 그리고 아시아로 이어진 갈릭루트를 따라 함께 번성한 인류의 모습과 인류가 열광하는 마늘의 힘을 담아 내었다. 네팔 히말라야를 시작으로 일본, 중국, 미국, 이탈리아, 이집트 등 4개 대륙, 6개국 해외 취재를 통한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며 투탕카멘왕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된 실물 마늘과 4천 5백년 전 왕의 무덤 벽에 새겨진 마늘 등 지역방송에서는 담기 힘든 귀한 영상도 함께 선보였다.</p> <p>2부 <마늘에 엉뚱한 상상을 허(許)하라>에서는 양념을 넘어서는 주연으로서의 마늘의 미래에 주목하고, 거부감이 우선인 마늘에게서 발견되는 반전의 매력을 찾고 그런 장점을 바탕으로 기능성 마늘음료 개발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았다. 마늘가공품 개발 노력으로 수입산 마늘로 인한 폐농과 폐업이라는 위기를 극복한 일본 타코마치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의 현실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았다.</p> <p>세계 기능성식품 시장은 해마다 성장하고 . 질병의 치료가 아닌 예방이라는 전주기적 건강관리로 변화하는 패러다임도 보이고 있기에 마늘을 활용한 건강기능 식품 소재 개발을 국내 국민건강 및 보건의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이는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p>	<p>○</p>	

	<p>전달력이 배가된 듯싶다. 올해 대전MBC는 한국방송협회가 선정하는 한국방송대상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2년 연속 2관왕의 영예를 안았는데, 내년엔 최초로 3관왕의 기록을 기대해 본다. 눈에 띄는 점 하나, 1부와 2부의 제목 선정이다. 제목에서 시청자들은 TV상자 앞에 모여든다(김학선).</p>	상된다		
<p>보도</p>	<p>길거리를 가다보면, 각종 행사를 알리는 글이나 구호 같은 것을 가로로 긴 천에 적어서 양끝에 막대기를 꿰어 달아 놓은 선전물을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프랑카드’ 라고 부르지만, 이것의 올바른 표현은 ‘플래카드’이다.</p> <p>또, 이와는 조금 다르게 선전 문구 따위를 써서 세로로 내려 드리운 것을 ‘현수막’이라고 한다. ‘현수’라는 말은 ‘아래로 매달려 드리워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드리운 선전막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p> <p>다시 말해서 가로로 거는 것은 ‘플래카드’이고, 세로로 거는 것은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다.</p> <p>그런데, 현실은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관용에 의해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점이다(김학선).</p>	<p>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보도국 뉴스시스템을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공지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사 송출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해 잘못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p>	○	
<p>편성</p>	<p>창사특집 특별기획 2부작 갈릭루트를 시청하였다.</p> <p>우리의 일상 음식에 필수적으로 첨가되는 마늘의 건강식품으로서의 효능에 대해 다시한번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내용이었다.</p> <p>마늘에 대한 기록으로 고대 이집트시대부터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건강기능성 뿐만 아니라 영생식품으로 취급되었다는 고증을 위해 4500년전 이집트 왕비 무덤의 벽화와 카이로박물관의 투탕카멘 왕 무덤의 부장품으로 발굴 전시된 마늘을 보여주어 역사적 고증을 하였고, 현재 이집트인의 일상 음식에도 마늘이 많이 사용됨을 현장감 있게 취재하여 보여 주었다.</p> <p>마늘의 효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1차 동물실험 결과와 2차적으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콜레스테롤 개선과 간기능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었다.</p> <p>한국인의 밥상에 필수적인 마늘에 대하여 건강식재료로서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개</p>	<p>창사특집으로 준비한 <갈릭루트>는 수개월 사전조사를 거쳐 제작한 작품이다. 마늘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를 새롭게 현대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보았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p>	○	

	<p>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새로운 갈릭루트의 역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창사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사전조사를 거쳐 동서양의 작은 도시까지 찾아다니며 취재 촬영한 제작진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 다양한 그래픽과 샌드아트 등 영상효과도 우수하였다고 본다(김명수).</p>			
<p>보도</p>	<p>세종시에서는 지난 12월 17일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골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하여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3년간 2015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거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14곳과 노인돌봄시설 16곳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p> <p>그리고 18일 대전MBC 뉴스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소득과 일자리, 주거 등 6개 영역별 복지기준을 도입하고 앞으로 3년 동안 2천15억원을 들여 6개 광역복지센터와 22개 복합커뮤니티를 건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4곳과 노인 돌봄시설 16곳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p> <p>대전MBC가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세종시가 3년 동안 2천15억원을 들여 6개 광역복지센터, 22개 복합커뮤니티, 국공립어린이집 14곳, 노인돌봄시설 16곳을 건립 및 확충한다는 것이다.</p> <p>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이날 세종시 발표는 오해를 일으킬 만 했다. 3년 동안 2천15억원 예산 중 6개 광역복지센터와 22개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투입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세종시에서 신규로 예산을 투입하여 광역복지센터와 복합커뮤니티를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이다.</p> <p>이날의 팩트는 3년 동안 2천15억원을 들여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14곳과 노인돌봄시설 16곳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6개 광역복지센터와 22개 복합커뮤니티 건립은 세종시 건설 원안 예산에 당초부터 포함돼 있던 것으로 2030년까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건립 후 세종시에 이관하는 사업인 것이다. 즉, 광역복지센터와 복합커뮤니티 건립은</p>	<p>지자체 보도자료의 경우, 업무 실적 홍보 위주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팩트 체크를 더욱 확실하게 단순한 보도자료 재작성에 따른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p>	<p>○</p>	

	세종시 복지기준에 따른 사업과는 별개의 건인 것이다(장백기).			
기타	<p>금년 한 해도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청자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있는 것인지, 시청자 권익보호와 대전MBC의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이바지는 하고 있는지, MBC 타 지방 방송사와 비교를 통해 되돌아보았다. 영동MBC와 포항MBC는 홈페이지상에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 그 2곳은 제외하였다.</p> <p>비교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0월, 비교항목은 1. 시청자위원회 회의 참석율 2. 사측 인사의 월평균 참석인원 3. 시청자위원의 월평균 의견 제시건수 4. 시청자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한 수용률, 4가지 항목을 하였다.</p> <p>그 결과 1.시청자위원의 회의 참석율은 전국평균 73.5%, 대전은 76% 2. 사측 인사의 월평균 참석인원은 전국평균 5.9명, 대전은 6.5명 3.시청자위원의 월평균 의견 제시건수는 전국평균 9.6건, 대전은 14.6건 4.시청자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한 수용률은 전국평균 56.1%, 대전은 64.3%이었다.</p> <p>모든 항목에서 대전MBC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결과치를 보여 주었다. 특히 시청자위원의 의견 제시건수는 타 지방 MBC방송사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위원의 참석율은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장백기).</p>	<p>시청자위원회의 활동과 그 기능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매 번 시청자위원의 지적은 프로그램 제작 일선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들에게 전달되어 채찍, 또는 격려로 수용한 올 한 올 실을 꺾매듯 프로그램 제작에 열과 성을 다한다.</p> <p>시청자위원 한 분 한 분 회의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인원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하겠다.</p>		
편성	<p>앙골방송 대전MBC 창사특집 “그 날 이후 ‘(12월 26일)’를 시청하였다. 메르스 공포에 떠 2015년도 대한민국의 민낯을 재조명한 프로그램이었다. 관계당국의 어설픈 대처에도 불구하고 질곡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감동을 잘 담아내었다. 간병인, 간호사, 의사 등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집념어린 작은 노력들을 카메라 앵글에 잘 포착하였다.</p> <p>아쉬운 점은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대응시스템을 이렇게 가동하여야 한다’ 또는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 라는 점이 빠진 점이다. 사후약방문일지언정 의료제도 시스템도 지적을 해주었으면 더욱 좋았겠다(한찬희).</p>	<p><그 날이후>는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메르스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메르스를 현장에서 겪었던 당사자들을 취재해, 어떻게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인의 숨은 힘과 의지를 시청자들과 함께 생각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p> <p>메르스는 그 확산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취약했던 부분을 보여준 큰 사건이었지만, 메르스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종식을 눈앞에 둔 현재, 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시련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마음이다.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진 일반 시청자들에게, 메르스를 직접 겪</p>		

		<p>은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가슴 속 이야기를 전하고, 나와 가족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메르스를 이긴 진정한 힘이였음을, 자극적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잔잔하게 그려내려 노력하였다.</p> <p>메르스를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던 기자, 휴먼 다큐멘터리에 강점을 가진 PD가 팀을 이뤄 연출팀을 구성함으로써, 보도와 제작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에 균형을 맞추었고, 이를 통해 2015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하였다.</p>			
<p>편성</p>	<p>창사 51주년 특별기획 갈릭루트에 대해 모니터링하였다.</p> <p>먼저 전편의 주제의식을 유지시켜 주거나 이끌어가는 리더(내레이터:알렉스)를 통해 리듬과 이야기 흐름을 조절하고자 노력했으나 프로그램의 포지셔닝에 맞는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이야기의 선명성과 주제의식의 발현이 명확하지 못했다.</p> <p>차마고도는 최불암이란 노배우를 캐스팅하여 차문화에 얽힌 중국민의 고난한 삶의 스토리를 잘 전달해 주었다. 이처럼 이야기 전달자에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p> <p>영상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미학적 접근, 특수촬영이나 CG를 통한 영상구성의 세련된 묘사와 독창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1부 마늘의 힘 세계인 마늘에 영광하다 편에서 유용한 식재료였던 마늘의 기원과 맛과 효능을 설명하기 위해 네팔, 이집트, 이탈리아, 중국, 미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동일한 앵글과 사이즈를 통한 음식화면, 나라별 사례를 수집하는 듯한 VJ식 구성, 그리고 반복되는 지루한 인터뷰 등의 영상이 그 예이다.</p> <p>2부 ‘마늘에 영동한 상상을 허하라’라는 주제로 마늘의 효용과 식재료의 주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슈퍼갈릭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p> <p>갈릭의 탄생부터 중요 식재료로 채택되고 오늘날 음식문화에 적용되기까지 과정을 고증과 음식전문가들에 의한 재현 모습을 CG 등을 동원해 영상구성을 하였다면 흥미를 배가시켰을 것이다(김형주).</p>	<p>갈릭루트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p> <p>차기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좋은 영양분으로 참고를 하겠다.</p>		○	
<p>보도</p>	<p>시사광장에서 세종시 건설 성과와 과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토론이 있었다(12월 27일) 대전에 살고 있는 나로서도 직간접적</p>	<p>이번 토론은 2015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세종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과제를 점검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따</p>		○	

	<p>영향을 받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문제여서 관심 있게 보았다. 특히 한 때 공무원이기도 하였기에 공무원의 입장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었다.</p> <p>하지만 방송내용은 비교적 나열식이어서 인상이 약하다. 인구유입률이 높다던가 부동산시장이 매도자 우위라던가 미래부 이전에 대한 보도들, 입주민들의 80%가 녹지공간 등에 만족하지만 교통에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였다.</p> <p>패널들의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일정한 주제가 있었다면 좋았겠다. 민감한 부분이기는하지만 세종시와 대전시와의 관계 상호발전 방향, 통합가능성, 수도권과의 교통문제, 세종시 거주 인구의 근무처 통계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짚어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어떨까 싶었다(성정모).</p>	<p>라서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나열식으로 열거되었는데, 그것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세종시가 인근 대전과 충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토론을 기획하겠다.</p>			
<p>편성</p>	<p>시사플러스에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주제인 ‘성형, 행복을 위한 선택?(12/10)’편을 방송하였다.</p> <p>10대 청소년들의 성형실태부터 그 부작용까지 보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외모지상주의의 도래가 아닐 수 없다.</p> <p>방송에서 안면윤곽술, 양악수술의 위험성과 사망사례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과장광고 등 문제나 피해자 구제 사례 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p> <p>다만 문제의 핵심은 우리사회에서 예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을 지나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치밀하지 못하다. 아울러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존중과 안전한 성형시술의 방법이나 범위 등 기술적 정보의 제공 부분도 더 보강되었다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성정모).</p>	<p>청소년 성형문제는 이제 <사회문제>로까지 다뤄져야 될 만큼 확대되어 있고, 그 피해도 적지 않다. 이에 제작진은 바른 방향으로의 선도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p> <p>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하겠다.</p>		○	
<p>편성</p>	<p>12월 19일 허참의 토크 앤 조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학자 오한숙씨를 만난 시간이었다. 오한숙씨가 솔직하게 자폐아를 키우고 있다고 밝혀 자녀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 남다르게 시청하였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p>	<p>여성학자 오한숙씨 이야기는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을 섭외하여 방송하도록 하겠다.</p>		○	

	오한속씨 토크는 시청할 만 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여성학자인 오한속씨에게 여성학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여성학적 접근이 많아 편하게 인간적 접근을 하였더라면 시청하는데 좋았겠다(유덕순).				
보도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칭한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과학도시’ 보다는 ‘과학문화도시’를 내세워 대전고유의 색깔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한다. 과학에 문화를 보강해 과학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보다 큰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대전MBC 보도에서도 이를 다루어졌으면 한다(김명수).	‘대전=과학도시’라는 명제는 불변이라고 본다. 대전MBC 보도국도 과학 관련 보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과학에 문화를 보강해 더 큰 담론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다. 대전MBC 과학 관련 보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 올린다.	○		
보도	뉴스데스크를 며칠간에 걸쳐 모니터링 하였다. 메인 뉴스라고 하기에는 단신보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시간 관계상 지역의 이슈라든지, 현안문제 등에 깊이 있는 취재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의 이슈를 심도 있게 탐사보도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희원).	앞으로 집중취재와 심층취재를 강화해 보다 깊이 있는 뉴스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다. 자체적으로도 핵심 사안에 대한 심층뉴스를 강화한다는 내부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 대전MBC 뉴스를 먼저 찾는 시청자들이 많도록 노력하겠다.		○	
편성	차량을 이동하면서 DMB TV를 자주 시청하는 편인데, 대전권역 방송 시청 중 청주권 방송이 수신되어 방송됨을 보고 잠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다.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박희원).	충청권 DMB는 대전, 청주, 충주MBC 3사가 공동투자하여 탄생한 매체이다. DMB 편성은 1주씩 순번제로 하여 대전, 청주, 충주MBC 프로그램이 각각 1주씩 방영된다.	○		